

벼랑끝 비정규직·알바생 이중고에 신음

코로나19에 해고 위기 고조
최저임금 인상도 기대 못미쳐
요양보호사 등 근무일 줄어
한달 120만원 벌기도 빠듯
“근무시간 줄어든게 더 위기”

‘코로나19’ 여파에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색된 경기로 해고 위기가 커지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턱없이 낮아 한숨만 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선’의 공약에도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98년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7%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해하지만, 고용주들이 대부분 비용 절약을 위해 근무 일수를 줄이는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무 일수가 줄어 수입이 크게 줄어든 마당에 시급마저 사실상 제자리여서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지만 근무일 줄어 120만원도 힘들어=6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박선화(55)씨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보다는 높은 인상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월 209시간 노동기준)하면 월 182만 2480원이다. 하지만 박씨는 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월급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나마 있던 요양보호 요청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 더 힘든 상황이다. 최근에는 출근일도 들쭉날쭉 일정적 않아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 건도 없어 월급은 182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씨는 “요양보호

사들은 10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일하는 사람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한달에 120만 원은 벌어야 그나마 가정이 유지되는데 이도 못 벌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해정(45)씨는 3년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1만원선의 최저임금을 기대했다고 한다.

130원 인상은 한 달에 2만 7000원의 인상이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못 받는 처지이다. 이미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내년도 최저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것은 알지만, 외환위기가 1998년때도 2.7% 올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더 힘든 사람한테는 더 더 양보 하라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 고용이 더 둔제”=학비 마련을 위해 뛰는 아르바이트생과 시급 기준이 아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광주시 북구 한 카페에서 3개월째 아르

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상황이 나빠 아르바이트생을 반으로 줄였고, 나도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불만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는 불만이 더 크다고 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인하나 동결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서 다행이지만 일단 내 일자리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일하는 김모(55)씨도 고용불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학습지 노동자는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학습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적게 받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과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많이 줄인 탓에 시급을 올려도 예전보다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따뜻한 훈방’ 사업에 참여해 반찬을 공급하고 있는 계림1동 동네 업체 직원들.

취약계층 돌보고 지역경제 돕는 ‘따뜻한 훈방’

광주 계림1동 관내 식당 통해
독거노인 등 반찬 배달 큰 호응

광주의 한 동사무소가 동네 업체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전달하도록 하는 ‘따뜻한 훈방’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동구 계림1동은 ‘따뜻한 훈방’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따뜻한 훈방’은 취사가 어려운 취약계층 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해 끼니걱정을 해결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상

권이 침체된 가운데 관내식당 4개소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구입해 자원봉사자가 배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업당 매출향상은 물론 1인 가구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 회복의 좋은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찬가게 삼시세끼 김미진 대표는 “코로나19로 가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던 중에 최근 ‘따뜻한 훈방’ 사업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다”면서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반찬을 더욱 정성껏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따뜻한 훈방 사업은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사업비를 전액 후원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19 재확산 3주째...송정역 발열체크
코로나19 재확산 3주째인 1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 송정역에서 열차를 이용, 광주에 도착한 승객들이 발열체검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앞을 통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 인구 5만 넘은 건국동 분동

광주시 북구 건국동이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건국동과 신용동으로 나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건국동이 오는 27일 인구과밀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

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국동과 신용동으로 분동된다. 북구는 지난해 10월 건국동의 인구가 분동기준인 5만 명을 초과하면서 현지 실

태조사·지역구 의원 간담회·온라인 및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분동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용동은 면적 1.8㎢에 인구는 약 3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건국동은 26.4㎢면적에 인구는 2만 2000명이 된다. 건국동 분동에 따라 북

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총 28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게 된다.

북구는 2022년까지 첨단2지구 내 부지에 신용동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임시청사(첨단연신로 97)에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역 학교 제한적 등교·원격수업 병행

광주지역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광주 지역 학교가 제한적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송파60번 접촉자인 광주177명의 초등 3·6학년 남매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남매가 재학중인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에 대해 전 학년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계수초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일체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자율격리를 시행토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돌봄도 시행하지 않는다. 교직원들은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더욱이 20일부터는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3분의 1 또는 3분의 2 병행수업을 7월말에서 8월초 여름방학 직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1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던 북구지역 특수학교와 초·중학교(특수 2개교, 초등 45개교, 중학교 27개교)도 20일부터 3분의 1이나 3분의 2 병행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다만, 모든 고3은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전남 오늘 오후까지 10~50mm 비

20일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정제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20

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이며, 20일 아침 최저 기온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김민석 기자 mskim@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